

전북도 신공항 부지 선정 '갈팡질팡'

정무부지사 일주일 만에 '새만금 안' 원점 재검토 시사 김제공항 등 3곳 중 의견수렴 절차 거쳐 연말까지 확정

전북도가 전북권공항 예정부지 선정 과정에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형규 정무부지사가 전북권공항 입지로 새만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일주일 만에 전북도가 태도를 바꿔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심덕섭 행정부지사는 지난 19일 일부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전북권공항 예정부지에 대한 도 차원의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원점 재검토의 뜻을 밝혔다. 옛 김제공항 부지와 김제 화포지구, 새만금 공항예정부지 등 3곳 모두 검토 대상에 포함시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것이다. 심 부지사는 "하반기부터 국토부의 5차

중장기 공항개발계획 용역이 시작되는 만큼 12월까지 늦어도 부지 선정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그간 입지 선정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전북권공항 건설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3일 전북도 이형규 정무부지사는 13일 "새만금 공항건설 사업이 새만금 마스터플랜에도 들어가 있고, 미군 측도 새만금 내 공항예정 부지에 국제공항과 활주로를 건설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그동안 새만금 신공항 부지나 김제 화포지구, 김제공항 부지 등 3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99년 김제시 백산·공덕면 일대(154ha)에 공항 건설을 추진했지만 지난 2004년 감사원이 항공 수요가 부족해졌다고 착공 시기를 재조정하도록 한 이후 전면 백지화됐다. 또 미국 공군이 소유한 군산공항에 국제선을 띄우려고 했지만 미군의 반대로 난항을 겪자 대체부지를 모색하고 있다. /전주·부안=강수기기자 knews@

전남 소식

담양서 초·중교사 환경교육 연수

전남자연환경연수원 20명 참가 환경 관련 특강·견학·체험 등

환경부 지원 환경교육프로그램인 '제4회 초·중등 교사 환경교육 직무연수'가 20일 담양군 수북면 전남자연환경연수원(원장 나도팔)에서 전남환경교육센터와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이번 교사연수는 전남도내 유·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 20명이 참가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외국 환경교육의 동향 인식과 환경보전 생활화를 위한 체험활동 중심으로 이뤄졌다. 직무연수 프로그램은 조선대 김원강 박사의 '환경과학 교육론', 이화여대 최석진 교수의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상황과 발전과제', 조선대 박종철 교수의 '지구환경과 천문우주' 특강으로 진행됐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광양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호응

불법 주차차 등 신고 절차 간편 예년 비해 이용률 30% 증가

광양시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가 생활민원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불법 주차차, 도로 및 가로등 등의 공공시설물 파손, 쓰레기 방치 등을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신고하면 관련 부서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서비스다. 지난 2012년 시행 이후, 총 680건이 접수·처리됐고 호응이 좋아 이용률도 예년에 비해 30% 증가했다. 신속한 해결로 민원처리기간도 10% 단축되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 또는 '불편신고'로 검색하거나 QR코드를 이용하여 앱(App)을 설치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접수된 생활불편신고는 위치정보까지 제공되어 업무담당자가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고 설명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해남 삼마도 "에너지 걱정 없어요"

해남군 화산면 삼마도가 전국 최대 규모 에너지 자립섬이 됐다. 20일 해남군은 따르면 최근 공사가 끝난 삼마도 에너지 자립섬에는 태양광, 풍력,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갖춰졌다.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 전 검사 필증이 나오면 조만간 전력 공급한다. 태양광발전설비(140kW)와 풍력발전설비(60kW)에서 연간 38만8천여kWh의 전기를 생산한다. 전력이 공급되면 생활가구의 에너지 자립성이 됐다. 사업 추진에도 큰 도움이 예상된다. 삼마, 중마, 하마 등 모두 3개 섬인 삼마도에는 현재 자가발전기인 디젤발전기 3대를 이용해 1일 160kW의 전력이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생활가전제품을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양이다. 삼마도에는 92가구 250여 명이 살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정읍 '카베카네스' 광복절 공연 성료 오카리나 연주·시낭송 등

정읍에서 광복절을 기념하는 뜻 깊은 공연이 열렸다. 지난 15일 정읍시 상동에 있는 문화공간 '카베카네스'에서 1주년 기념 '오아시스 콘서트'가 열렸다. 전북과학대학교 방송연예·미디어과 이만세 교수의 진행으로 과학대공연단 '쇼킹'의 최진필 군의 가요 열창과 김용현의 3인의 오카리나 연주, 정읍문인협회 사무국장 최해숙 선생의 축하 시낭송이 곁들여졌다.

또 정읍 출신 부산언더그라운드 가수 김창규의 기타 연주와 노래, 작곡가 안기석 선생의 독창, 방송아카데미 박성규 교수의 감미로운 피아노 연주가 이어졌다. 카베카네스에서는 클래식을 비롯한 월드뮤직까지 다양한 음악으로 꾸며지는 '음악이야기'와 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각종 연주회가 매달 열리고 있다. 이 밖에도 우리 땅 독도 강연, 전북 교육정책 강연, 토크 콘서트, 정읍 출신 작가들의 사진전과 유화전, 조각전, 바이올린과 기타 합주, SNS 사진전 등도 진행됐다. 카베카네스 대표인 (사)정읍역사문화연구소 김재영 이사장은 "문화공간을 아끼고 이 공간이 존속되어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성원이 있어 뜻깊은 행사들이 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읍=박기성기자 parkks@



남원 토기 구경하세요
관광객들이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내 향토박물관을 찾아 남원에서 출토된 다양한 시대의 토기를 감상하고 있다. 향토박물관은 다음달 26일까지 남원 토기 기획전시회를 연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남원시의회 의원들 현장 속으로

88고속도 확장 공사 구간 방문 지리산담 건설 대응전략 모색도

남원시의회 안건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윤지홍) 소속 시의원들이 최근 88고속도로 확장공사 구간에 위치한 산동면 부설리 전 통사할 정덕암 입구 통로박스 이설요구 진정민원 처리를 위해 현장을 찾았다. (사진) 또 지리산담 건설계획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지난 19일 산동면, 경남 함양군 휴천면 현장을 방문했다. 장덕암 진입로 진정민원은 88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신설된 통로박스 위치를 변경해달라는 민원에 따라 윤지홍 위원



장, 김승근, 전평기 지역구 의원의 1차 현지 방문에 이어 지난 19일 현장을 찾았다. 윤지홍 위원장은 "민족의 영산(靈山) 지리산에 환경 파괴하는 담을 건설을 적극 반대하며 담 건설에 따른 직·간접 피해지역인 남원시민의 의견이 반드시 수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NAVER **단비플라워** 농협(박배성) 302-0316-649511

죽아화관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4성급★ **호텔건물매매**

- 현재 노인요양시설 허가 취득
- 엘리베이터 설치 및 리모델링공사 완료
- 목포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위치
- 4성급호텔, 노인병원 등 즉시 사업가능 (커피숍은 휴업중)
- 주차장 및 부속상가 건물 3동

목포시 대의동 2가 1-9번지의 3필지(지상 9층 지하 1층)
토지면적 3,478㎡(1,054평)/건축면적 7,091㎡(2,149평)

연락처 010-9823-7781, 010-9696-8701

아주 싼 녹지지역
전원주택 및 사찰 부지 최적!
동일 조건에서 더 싼 땅은 없습니다.

- 지역: 보전녹지지역
- 지목: 전
- 면적: 3,716㎡
- 매가: 3.3㎡당 35만

소액 투자
완도군 고금면 농상리 고금-신지 국도 주변 바닷가. 경사 완만. 전망 좋음.

- 지역: 관리·농림 혼합
- 지목: 전 및 임야
- 면적: 8,569㎡
- 매가: 3.3㎡당 3만

최고의 전원주택지
서구 세하동 최고 요지
정남향 앞도로 접, 조망권 최고!!

- 지역: 1종 주거지역
- 지목: 전
- 면적: 1917㎡
- 매가: 3.3㎡당 120만

행운(구 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송창석
011-642-7777

收益 **33.3% 호텔**
"급매매"

대지 6,600㎡, 건평 2,192㎡
객실 48개, 지하수, 심야전기
2013년 리모델링 완료
최고급 럭셔리 호텔급 시설
지역 독점상권, 접근성 최고!

-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 매출 장부확인 및 계약부조건 가능
- 3년 운영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
- 매가 33억 (용자 15억), 현금 18억
- 가격 절충 불가, 실수요자만 문의 바람

신세계공인중개사사무소
문의전화 010.5188.5515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